

데스크시각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자라섬은 전 세계 재즈 마니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음악의 섬'이다. 매년 10월이면 관광객들이 반짝이는 별빛 아래서 못자리를 깔고 따뜻한 담요로 몸을 감싼 채 재즈 뮤지션들의 연주를 즐긴다. 하지만 불과 13년 전만 해도 이곳은 버려진 땅이었다. 무분별한 모래 채취로 생태계가 파괴돼 비단 오련 물에 잠기기 일쑤였다.

척박한 자라섬에 '빛'이 들게 된 건 지난 2004년 10월 첫선을 보인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이후다. 재즈라는 음악 장르와 캠프 문화를 접목시킨 축제는 국내에서 시도된 적이 없었던 특별한 콘셉트였다. 그 때문이었을까. 재즈 페스티벌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내외에서 20여 만 명이 다녀가는 아시아 최고의 음악 축제로 성장했다. 올해까지 누적 관객 수는 220만 명. 유료 방문객 중 5%가량이 외국인일 만큼 국제 축제로서도 손색이 없다.

어디 자라섬뿐인가. 1990년 대 이후 지역의 문화 자산을 고부가 관광 브랜드로 키워 낸 지자체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문화 광주, 관광을 더하라

추세다. 부산 국제영화제, 대구 근대 골목, 제주 이종섭 미술관, 대관령 국제음악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은 요즘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다. 자라섬처럼 오지에 가까운 산골이었지만 '아트투어'에 눈뜬 제주시 덕분에 2007년 이후 마을 전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변신했다.

제주 아트 올레가 뜬 까닭은

저지예술인마을에 들어서면 제주현대미술관을 비롯해 '물방울 작가'로 유명한 김창열 미술관, 야외 조각 공원, 갤러리 진, '규당미술관' 등 개성 있는 건축물들을 만나게 된다. 평일 한낮에도 마을 곳곳에는 조각 작품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거나 예술길을 산책하는 여행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예술가의 내밀한 작업실을 엿볼 기회도 얻는다.

저지예술인마을의 하이라이트는 이름 그대로 '예술가들의 집'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9년 북제주군이 제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 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곳이다. 2003년부터 박서보 화백 등 유명 예술가 20여 명이 동자를 틀면서 창작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에는 저지예술인마을과 제주 지역의 미술관·박물관 80여 곳을 묶은 '제주 아트 올레'를 열어 10만여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었다.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미술의 섬

을 특화시킨 전략이 통한 것이다.

최근 광주시 공동 예술의 거리에선 아시아 문화 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간담회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주변을 창작과 유통이 어우러지는 문화 예술 특구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30여 억 원을 투입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자리였는데, 참석자들은 그동안 쏟아낸 예산과 에너지에 비해 별반 달라진 게 없는 현실에 씁쓸해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이 무색하게 예술의 거리에서는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낮에는 사람보다는 자동차들이 더 눈에 많이 띄고 밤 8시 이후에는 상가들이 문을 닫아 불 꺼진 거리로 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매년 3억 원씩 들어 프로그램을 '돌리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은 피로감을 주는 연례행사로 전락한 상태다.

이렇게 된 것은, 근본적인 처방은 외면한 채 반짝 효과에만 의존해 온 행정편의주의의 탓이 크다. 예술의 거리에 대한 정확한 '진단' 대신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일회성 이벤트 개최에 급급한 것이다.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앞으로도 젊은 세대를 겨냥한 상설 문화 공간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한 '공동의 봄'은 백악이 무효일 뿐이다.

문화 관광의 1번지라고 하는 예술의

거리가 이렇진대 대인 예술시장, 프린지 페스티벌, 광주 중외공원·울림동 미술관 벨트, 광주폴리, 아트페어,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정음성 음악축제 등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16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에 따르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우리나라 관광지 '톱 100'에 광주 지역 관광지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뷰폴리에서 영화를 보다'

이와는 달리 얼마 전 한국관광공사에서 여행 주간에 진행한 '예술광주-유랑, 뷰폴리에서 영화를 보다'는 신선한 감흥을 안겨 주었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온 30명의 참가자들은 광주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뷰폴리'(광주영상복합문화관 옥상)에서 영화 '어바웃 타임'을 감상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 참가자는 "다른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색다른 기회였다"면서 "여행 광주의 진수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알고 보면 광주에는 다른 도시에서 찾기 힘든 볼거리가 풍성하다. 하지만 '인팩트'가 적은 백화점식 콘텐츠로는 지속 가능한 문화 관광 도시를 꿈꾸기 힘들다. 문화와 재미, 힐링이 녹아 있는 '아트 투어'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이번 문화 관광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옥석(玉石)을 가려내는 일일 것이다. /jhpark@kwangju.co.kr

은펜칼럼

긍정이 힘이다



김창균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얼마 전 2년여 만에 LPGA 투어 정상에 오른 프로 골퍼 정인지의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질문에 "역경 없는 도전은 없다고 생각하며, 우승컵과 멀리 있던 시기에도 부정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미국 네브래스카대학 프레드 루탄스 교수의 '긍정 심리 자본'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다.

긍정 심리 자본에는 '히어로(HERO)'가 중요하다. 즉,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Hope), 할 수 있다는 자신감(Efficacy), 실패했을 때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 잘 될 거라는 낙관적 믿음(Optimism)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

방탄소년단(BTS)을 대표한 리더 RM(김남준)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나의 행운'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넘어지고 휘청거릴 수 있겠지만 '어제의 나도 여전히 나고, 지금의 나도 절절 많고 실수도 하는 나'임을 받아들이고, '내일의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는 나'를 위해서 "Love yourself(스스로를 사랑하자)"라고 현재의 자신을 긍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살다 보면 언제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바다로 떠밀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존 고든의 '상어와 금붕어'에서도 금붕어 골디와 상어 새미를 통해 이에 대처하는 법을 알려 준다. 어항 안에서 부족함 없이 인락하게 살던 금붕어 골디는 바다로 휩쓸려가는 사태에 봉착한다. 잔바닷물과 굶주림에 지쳐가던 골디에게 새미는 바다에서는 상어처럼 되라고 충고한다. 어떤 행동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먹이를 찾아야 한다며, 변화를 긍정하고 비관론자를 만나도 휩쓸려 가지 말라는 조언도 잊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변화의 주체는 결국 자기 자신이며, 변화의 물결을 수용하고 극복하는 것은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다.

가장 견고한 감옥은 자기 스스로 만든다는 말이 있다. 난관에 부딪혔을 때 두려움은 변명거리를 만들게 하고 우리를 뒷걸음치게 한다. 경기에 이기려는 집착으로 '어제' 자신의 루틴(routine)이 징크스로 이어지고, 이들이 모이다 보니 결벽으로까지 이어져 선수 생활 내내 힘들었다고 전직 농구선수 서장훈은 고백하였다. 자유투를 던지기 전에 공을 툭기는 횟수와 성공 여부를 인과 관계로 연결하고, 경기에 진 날에는 어떻게 속소를 정리했는가를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징크스에 신경이 쓸리는 순간부터 생활의 모든 순간은 부자연스럽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상황에 집중해야 할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된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세상인데, 노루 제 방귀에 놀라듯 지레 겁부터 먹고 뒷걸음칠 필요는 없다. 'NO'를 거꾸로 쓰면 전진을 의미하는 'ON'이 된다는 빈센트 필 목사의 말도 잊지않은 가.

작년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고 나서 SNS에 올라온 한 수험생의 사연이 떠오른다. 아침 밥상에 미역국을 올린 엄마를 보고 화를 낼 뻔했는데, 엄마께서 '수

능 못 쳐도 네가 못해서 망친 게 아니라 엄마가 미역국 해줘서 망친 거라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며 밥 먹다가 울었다는 사연이었다.

어김없는 연례 행사로 올해 수능도 내일로 다가왔다. 우리 수험생들이 스스로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징크스에 갇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험을 '잘 보라'는 거울, 정답을 '잘 찍으라'는 포크처럼 긍정적 에너지는 가까이 받아들이고, 초콜릿이나 옛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니 흔쾌히 선물로 받을 일이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중요하다. 집중하는 점을 마음에 새기고, 긍정적 마인드가 힘임을 믿고 내일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

주위를 닦아주기보다는 매사를 감싸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견뎌야 더욱 좋겠다. 앞서 엄마로부터 미역국 밥상을 받은 학생은 시험장에 들어가 전에 어머니께 큰절 한 번 하고 들어갔고, 그리고 시험 잘 쳐서 원하는 대학에 락 붙었다고 한다. 돌이켜 보면, 미역국 '때론'으로 돌리지 않고 부모님 정성에 감사한 마음 '덕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지 않았을가 생각한다.

기고

광주형 일자리, 졸탁동시의 마음으로 성사시키자



이언우
광주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

"새는 알을 힘겹게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헤르만 헤세 '데미안'의 한 구절이다. 각자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풀이될 터이지만, 요즘 필자는 이 구절에서 사회에 각 발을 들이는 청년들의 몸부림을 떠올리곤 한다. 사상 최고의 취업난 속에 청년들이 부모 슬하의 보호막을 깨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독립해 나가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것이다. 어엿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일자리'다.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적 수입원만을 뜻하지 않는다. 개인을 넘어 한 가정과 사회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자리다. 허나 현실은 매우 암울하다. 제조업 체감 경기와 수출 등 각종 경제 지표에는 내내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역대 최악의 실업률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심각한 취업난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떼지도 못하고 껍데기 속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열정'과 '노력'으로 이겨내라고 채근하기에는 심히 가혹한 실정인 것이다.

이에 대한 혁신적 대안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 형태의 완성차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빛그린산단에 1000cc 미만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을 연간 10만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세워 연봉 3500만~4000만 원선의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하는 것

이다. 임금이 적은 대신 주거, 육아, 여가 생활 등 생활 기반과 복지를 지원해 근로자의 고정 지출비를 낮춰 삶의 질을 높여 도록 한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경제적·사회적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면서 국정 과제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은 노동비용의 감소를 통해 상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을 이끌어 내고, 세계 시장에서 현대차의 입지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과 청년, 기업이 원하는 바람직한 경제모형이 바로 이곳, 광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물론 처음 뉘아가는 길에는 돌부리와 덩불도 있기 마련이다. 민주노총 및 현대차 노조 등과 대화하고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치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다. 광주가 이를 성사시키면 전국적인 성공 모델이 되어 대한민국의 새

로운 희망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선 7기가 그리는 '사람과 돈, 기업이 모이는 광주' 건설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는 절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일자리는 청년을 불러 모은다. 사람이 모이는 도시에는 희망이 쌓인다. 청년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광주. 1만 개의 월급 통장에서 수십 만 개의 꿈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주형 일자리인 것이다.

졸탁동시라 했다. 병아리가 부화하기 위해 힘겹게 알을 깨나갈 때 어미닭이 밖에서 함께 쪼아주며 새끼가 나올 수 있게 돕는다는 뜻이다. 혹독한 취업난 속에서 희망의 미래를 더듬어가는 청년들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언컨대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자립을 위한 희망 모델이자 어제의 청년이 오늘의 청년에게 전해주는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다.

社說

5·18 당시 진압군 중 상당수 국가유공자라니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에 투입된 계엄군 상당수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평화요구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상(전투 중 부상)이나 공상(공무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투입된 계엄군 30명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서 모두 13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이 가운데 9명은 전상을, 4명은 공상을 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2004년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지정 기록이 전산화되지 않아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과거 군사 정권 시절 5·18 진압군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이 다수 이뤄졌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100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국가보훈처는 연말까지 5·18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례를 모두 찾아

내 적절한 심사가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80년 5월 당시 계엄군들이 입은 전상과 공상 등이 국가유공자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당시 부상을 입은 계엄군을 보훈대상자로 선정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임무 수행에 나섰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18 당시 계엄군들은 시민의 생명 보호는커녕 무차별 살육과 성폭력 등 온갖 만행을 일삼은 만큼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문화 학생 1만 명 시대 보다 세심한 배려를

다문화 가정 학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올 4월을 기준으로 전남 지역의 다문화 학생은 유치원 1192명, 초등학교 695명, 중학교 1377명, 고등학교 1099명, 특수학교 26명 등 모두 9789명에 달했다. 지난 2015년 7238명에서 지난해 9169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조만간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모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696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1898명), 중국(1741명), 일본(103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군별 다문화 학생 규모는 순천 907명, 여수 863명, 나주 753명, 목포 698명, 광양 642명, 화순 530명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다문화 학생이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교육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기만 하다. 이 때문에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

관 진학률이나 학업 중단율도 일반 가정보다 높다. 이는 상당수가 아직 우리말이 서툰 데다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금 다른 외모와 말투에서 오는 편견과 따돌림 등도 이들의 꿈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다문화 학생 1만 명 시대에 맞춰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다문화전담 팀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교육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올 봄 여수에 개원한 전남국체교육원에 자리 잡은 전남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교원 연수 및 학생 체험 활동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되는 날도 머지않았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맞춤형 진로 교육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날이다. 수년간 밤잠을 설치며 고생했던 수험생들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가운데 하루다. 특히 고교 내신이나 학생종합기록부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시 응시생보다 수능 점수를 가지고 정시로 대학을 진학하려는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더욱 클 것이다. 이번 대학 입시는 수시 모집 비율이 70%에 달하고 정시 비율이 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시를 지원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각 대학의 정시 모집 인원 이 적은 만큼 수능 시험 한 문제로 희비가 엇갈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교사와 의사 직업을 가진 학부모들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학벌 지상주의, 목척 제일주의가 빚어낸 산물이라 하겠다. 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맹자(孟子)의 어머니가 자식을 훌륭하게 가르치기 위해 세 번 이사했다는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라는 고사가 떠오른다. 자식을 훌륭하게 가르치기 위해 좋은 환경을 찾고 만들어 준 맹자 어머니의 실천이 지금 이 시대에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는 뼈뼌어린 부성(父性)·모성(母性)으로 변질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열심히 공부해 온 수험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교육계가 내신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정밀한 시스템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

맹모삼천지교